

“죽은 자가 산 자의 눈을 연다”

서적의 우주, 문화유산의 상징, 도서관

이광주

인제대 명예교수 · 서양사

지난날 유럽에서는 학식자 뿐만 아니라 성직자·귀족·상인에 이르기까지 낮은 도시에 들르면 도서관을 찾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것은 중세의 순례에 비길 만큼 서적의 우주, 보편적인 정신을 향한 또하나의 순례 길이었다. 특히 18세기 가정교사를 거느린 젊은 영국 귀족들의 수업여행인 이른바 ‘그랑 투어’에서 유명 도서관 방문은 필수적이었다. 도서관의 무엇이 사람들을 그토록 유인할까.

도서관은 열람실을 갖춘 단순한 서고가 아니다. 그것은 독서와 연구를 위한 문고이기에 앞서 우리들로 하여금 무한한 환상을 일으키게 하는 서적의 우주다. 각종 희귀본과 더불어 위대한 문인 사상가의 친필 원고, 옛 성인이나 군후(君侯) 귀족의 진귀한 유물들이 소장된 문화유산의 보고이다. 어디 그뿐인가. 이 서적의 전당은 건조물 그 자체가 아름답고 장엄한 구성을 이룬 종합예술로서 모든 순례자를 감동시킨다.

도서관은 이렇듯 대성당이나 수도원, 대학이나 미술관 박물관, 궁전이나 오페라 극장과 더불어 아니 그 모든 것에 앞서 유럽문명의 상징이요, 그 발신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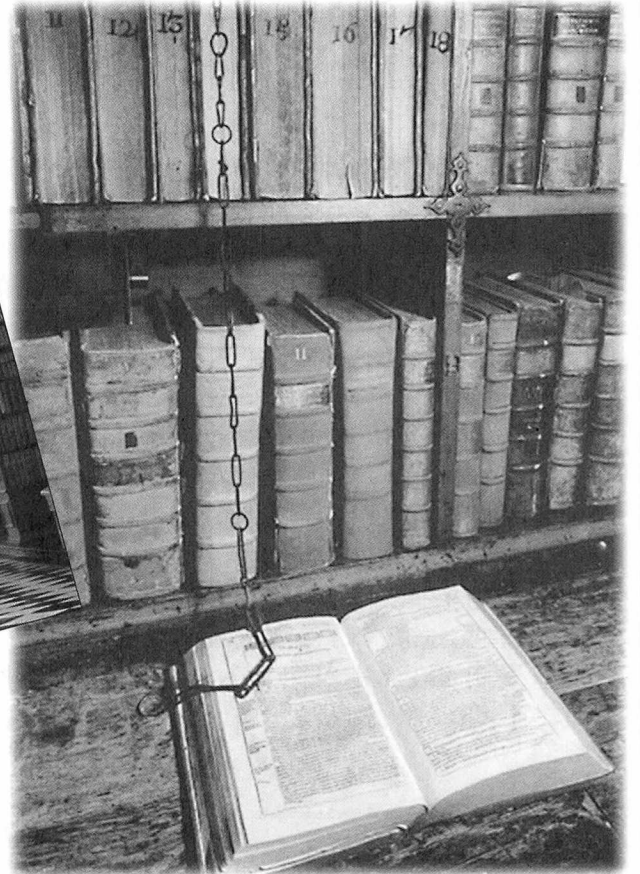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도서관’ (bibliothek)이라는 말은 그리스어에서 비롯된다. ‘비블리오’ (서적)의 ‘테크’ (작은 상자)라는 뜻으로 서적은 고대사회에 상자 속에 보관됐다. 고대 그리스-로마에도 공공도서관이 있었으며 한참 융성을 자랑한 당(唐)나라 궁정과 대관 부호들의 장려한 서고나 서루(書樓)에 관한 이야기도 있으나, 모두 기록에 의해 전해질 뿐이다.

고대의 대표적인 도서관은 당시 세계의 십자로였던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다. 기원전 280년 경에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에 의해 세워진 그 도서관은 알렉산더대왕의 세계제국 이상을 지식의 세계에 실현하고자 하였다. 70만권을 자랑하는 장서는 여러나라 학자 문인들의 저작을 빌려서 카피하여 돌려주거나(원본은 압수) 항구에 기착한 선박이 적재한 서적을 납본시키고



· 트리니티 칼리지 도서관 내부.
멀리 바이런상이 보인다.
· 쇠사슬로 묶어 보관했던 옥스퍼드대학 보드리 도서관의 책들.



전리품으로 강요하는 등 수단을 가리지 않았던 수집방법으로 모은 것이다. ‘다양한’ 수집책(策)이 예술품에도 오랫동안 적용되어 왔음은 대영박물관이나 루브르박물관이 잘 말해준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또한 무세이온(mouseion)이라고 불리는 학술연구소 내지 대학이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거기에서는 수백명의 연구원이 연구와 저작활동에 종사하고 강의도 하였다. 특히 중요한 업적으로는 72인의 학자가 참여하여 이룬 구약성서의 그리스역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서양학문의 한 기원을 이룬 고대 최대의 이 도서관은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병화(兵火)를 입고 그리스도교도들에 의해 이교문화의 본산이라 하여 박해당하고 389년에 불살라졌다. 이 인류 공통의 유산을 소생시키고자 하는 계획은 1986년 이집트 정부에 의해 제안됐다. 현재 유네스코 중심으로 장서 8백만권을 목표로 한 도서관을 세우고 있어 크게 기대된다.

수도원 도서관을 찾아서

유럽 최초의 도서관은 수도원 도서관이다. 수도원은 4세기 말 고대의 몰락에서 12세기 대학의 출현에 이르기까지 유럽문화의

중심이였으며, 수도원 도서관은 고대 문헌의 보존과 사본 제작 등 중세 서적문화의 유일한 거점이었다.

고대의 도서관 건물 정면에는 ‘영혼의 의약’이라고 명기돼 있었다고 하거나와 문자의 종교인 가톨릭교회에 있어 도서관은 보다 현실적이며 직접적인 메시지의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무지와 싸우는 정신의 무기를 넣는” 장서고(藏書庫)였다. 무지는 이단을 의미하고 정신의 무기는 하나님의 서적을 의미함은 물론이다. 독일의 역사가 레슈부르크는 《유럽의 옛 도서관》(1974)에서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 여러나라의 역사적인 도서관 49관에 관해 저술한 바, 그중 수도원 도서관이 20관에 이른다. 그밖에 군후 귀족에 의해 세워진 것이 15관, 대학도서관이 5관, 그리고 공공도서관 등이다.

그러면 수도원의 장서 수는 얼마나 되었을까. 서적은 구텐베르크 이전 사본시대에 대개 1~3부 제작됐다. 말하자면 서적이란 바로 희귀본이요, 보석과 같은 진귀품이었다. 그러므로 학식자인 주교의 개인 장서나 수도원 장서라 하여도 수십권을 넘지 못하였다. 중세 사본제작 및 수집의 대표적 거점의 하나였던 스위스 장크트 갈렌의

베네딕트교단 수도원 도서관은 당시로는 드물게 독립된 건물(그 1층은 사본 제작실을 했고, 2층은 장서고였다)이었으나 수도원 문화의 황금기였던 9세기 후반에도 그 장서는 5백권에 지나지 않았다. 중세 말 아비뇽 교황들의 장서도 2천권 정도였다.

그런데 도서관이란 고금을 가리지 않고 시대를 거듭할수록 장서가 부풀어지게 마련이다. 장크트 갈렌 도서관은 지금은 중세학 전문도서관으로서 약 2천권의 사본과 10만권의 방대한 장서를 갖추고 있다.

여수도원은 물론 남성 금지구역이다. 그러나 도서실 방문객에 한해 특별한 안내를 받으면 남성출입이 허용된다. 필자도 1972년 봄 독일 프라이부르크 교외의 여수도원 문을 두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몇마디 문답 끝에 안내받고 들어선 도서실의 호화스러웠던 광경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천국을 실현한 캠브리지의 대학도서관

대학의 성립과 더불어 수도원 문화의 시대가 끝나고 대학문화 시대가 도래했다. 수도원 도서관이 서적 보관의 성격이 강한 데 비해 대학도서관은 독서하는 공간의 성격이 짙었다.

파리 소르본 대학의 도서관은 장서와

더불어 28개의 서견대(書見臺)를 갖췄다. 서견대란 아직 서가의 관념이 없었던 중세 때 서적을 볼 수 있도록 엮은 시설인데, 도난방지를 위해 책을 쇠사슬로 묶었다. 서견대가 서가로 바뀌게 된 것은 16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다. 그러나 책을 쇠사슬로 묶는 중세적 유풍은 놀랍게도 19세기 초까지 남아 있었다.

소르본은 도서관의 대도서관에 칼리지 소장의 귀중본을 쇠사슬로 묶도록 규정짓고 복사본이나 대출용 도서는 소도서관에 놓았다. 1325년 경 소르본의 재산목록에 따르면 대도서관에는 330권이, 소도서관에는 1091권이 소장돼 있었다.

중세 대학의 대표적 도서관으로 옥스퍼드 대학의 보들리언 도서관과 캠브리지의 트리니티 칼리지 도서관을 꼽을 수 있다. 캠브리지의 트리니티 칼리지 도서관은 예부터 "도서관으로서 이이상 아름답고 마음 편한 곳이 없다"는 평판을 받아왔다. 수많은 칼리지군 중에서도 학문적 업적과 재정적인 부를 자랑하는 트리니티 칼리지답게 그 외관의 고전적 양식미와 내부의 장려한 인테리어는 그곳을 찾는 모든 이로 하여금 찬탄을 자아내고 걸음을 멈추게 한다. 17~18세기 유럽의 바로크와 로코코시대는 건축붐 시대였으며, 당대 영국 제일의 건축가였던 렌 경이 설계한 이 작품은 건축예술 최대 걸작으로 이름높다.

어느 시인은 "천국은 도서관의 모양이리라"하고 읊었던 바, 세계에 둘도 없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킹스 칼리지의 예배당)과 트리니티 도서관을 세운 옛 영국 사람들은 캠브리지 마을에 천국을 실현하고자 하였던가. 10세기의 캔터베리 사본과 셰익스피어의 초판본, 밀턴의 초기 시집과 뉴턴의 자필원고 그리고 수많은 사본과 인큐나블라(초기간본)를 간직한, 그러면서도 작은 서재와도 같이 편안한 분위기를 풍기는 트리니티 도서관, 그 천국의 축복받은 주민 속에서 우리는 뉴턴, 프란시스 베이컨, 바이런과 드라이든, 머콜리와 테니스, 그리고 화이트헤드, 러셀 비트겐슈타인의 모습을 본다.

도서관의 황금기는 15, 16세기 르네상스 인문주의의 전개와 더불어 시작되며 그것을

뒷받침한 것은 왕후 귀족이었다. 그들은 학예의 애호가로서 혹은 그 패턴으로서 예술품을 대하듯 서적을 탐내어 수집했다. 그들이 구상한 <예술작품으로서의 국가> (부르크하르트)의 상징인 미술관과 함께 <이탈리아의 도서관은 보통 회화 조각, 그밖의 장식으로 되어 있어 서적은 마지막에 보는 것이다>라고 일컬어질 만큼, 도서관을 공들여 지었다.

예술작품으로서의 궁정도서관

그 전형적인 최초의 작품이 피렌체 메디치가(家)의 라우렌치아나 도서관이다. 이 도서관은 가문변영의 기초를 이룬 코지모의 장서를 중심으로 메디치가 출신의 교황 클레멘스 7세에 의해 1534년에 세워졌다. 그 설계자는 미켈란젤로이다. 건축사상 가장 중요한 르네상스 양식의 라우렌치아나 도서관은 넓은 공간에 호화로운 조각의 서견대가 44개 놓여졌다. 메디치가 궁전에 출입한 많은 인문주의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던 장소 중에는 그리스의 작품, 키케로의 설화집, 타키투스의 《연대기》 등과 카롤링거 조(朝)의 사본 등이 포함되었다.

15세기 이후 17, 18세기에 이르기까지 유럽의 궁중 귀족사회에서는 도서관 건축붐이 유행처럼 일어났으며 독립된 도서관 건물을 가지지 못한 군후들은 모든 예술이 저마다의 역할을 연출하는 장중하고 우아한 도서관(파리 폰텐블로의 프랑스와 1세의 도서관)을 앞다퉈 꾸몄다.

한편 베를린 포츠담의 상수시궁전 도서관은 뛰어난 건축가와 조각가의 합작품이자 로코코 양식의 걸작으로 알려져 있다. 이 도서관은 주인인 철학왕 프리드리히대왕의 취향을 반영하여 호메로스·플라톤·헤로도토스·베르길리우스·호라티우스·키케로 등 고대 그리스-로마 작가의 프랑스역 컬렉션과 더불어 거의 원본인 17, 18세기 프랑스문학 등이 돋보인다. 도서관 내의 프리드리히 서재를 채운 것은 그 주인의 오랜 친구인 볼테르의 작품이었다. 볼테르는 포츠담 체재시 자주 그 서재에서 나날을 보냈다. ❖

부도! 요즘 어려운 출판 유통 시장!

사장님! 힘내세요.



“
포인트라인
만나면
즐겁습니다.
”

출판미술전문회사 POINT LINE

불황을 이기려면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야 합니다.

포인트라인은 이러한 아이디어가 풍부한 회사입니다. 일러스트레이터 일곱명과 우수 디자이너 다섯명 그리고 연구 기획하는 아이디어맨 세명으로 구성된 색다른 눈을 가진 그러한 회사입니다. 일러스트레이션부에서는 종이입체 일러스트, 파스텔화, 지점토, 유화 및 기타의 기법으로 작업을 해왔으며, 픽처북, 표지, 카렌다, 카드, 각종 참고서, 교과서, 학습지, 스토리북 등 기타 어떤 일러스트도 소화해 내는 국내 유일의 팀입니다. 광고 디자인부는 사보편집 기획부터 단행본, 카달로그, 리플렛, 신문 잡지광고, 표지디자인, 브로슈어, 포스터 및 C.I.P등을 하고 있으며 연구기획실에서는 일반 단행본 기획, 유아도서 기획, 학습지 개발, 유치원 교재 개발까지 지난 15년간 항상 앞서가는 기획을 하려고 노력 해 왔습니다. 출판 미술 전문 집단 포인트라인은 앞으로 최고만을 고집 하며 한국 출판사의 자존심을 지키며 세계 여러나라 출판사와 당당히 겨뤄 자랑스런 포인트라인이 되겠습니다. 지켜 보십시오!



서울시 성북구 보문동7가 31한일빌딩3층
전화 02)928-3491~3 • 팩스 02)926-2246